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

- 대전광역시 석교동을 중심으로 -

송두범** · 임현정*** · 정선기****

Process of community formation through the business of community building

Song, Doo-bum · Im, Hyun-jung · Chung, Sun-kee

-Abstract-

This research is an investigation on the process of making community at Seokkyo-dong in Dae-jeon which undergoes community building at the moment. The process of making community at Seokkyo-dong is not specifically defined in timely manner. However, the residents divided the process of making community into 3 steps by considering those major incidents including various small gatherings, participation-activation step, organization step and semi-autonomous step. The residents are currently proceeding various community businesses and group works and program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formation at Seokkyo-dong is as such: firstly, there are many residents who have been living there for a long time as Seokkyo-dong is an old town. Secondly, the residents know what the major problems are in their town. Those residents who have been living in the town for a long time, are very interested in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to understand and to solve those problems in the town. Thirdly, there are many social activists living in the town wh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residents. The activists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unity formation by sharing the daily life with the residents. Fourthly, those various gatherings and families already formed overly network in the town. Fifthly, the community activity is connected to each other. Continuous consideration on the problems is reflected on planning the community formation and is applied in making community. Seokkyo-dong community is still in progress of community formation. The residents at Seokkyo-dong now become aware of the community and moreover, become autonomous leaders of the community with forming a community spirit through the community activities of community formation. The awareness of residents about the community will lead Seokkyo-dong to be more mature community.

Keywords: community, community formation, community building

* 본 연구는 2016년도 충남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였음.

** 주저자,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dbsong@cni.re.kr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cuim1230@naver.com

**** 공동저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sg3763@cnu.ac.kr

◇ 논문접수일: 2016. 10. 24. ◇ 논문심사일: 2016. 12. 16. ◇ 논문게재 확정일: 2016. 12. 26.

1. 서론

마을을 기반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개개인의 목적의식을 가진다. 즉 일정한 공간에서 주민 활동의 공공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런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과 역할 때문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공동체는 그 형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환경의 변화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는 공동체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학자들에게 학술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복잡한 사회구조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결합, 다양한 집합의식은 공동체적 경험과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서구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특성이나 활동과 연결시키기에는 거리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실천에서 시작한 사회운동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연구자의 관점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큰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공동체의 개념과 실천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가진 공동체연구의 흐름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개념을 정립하는 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사회가 붕괴되었고, 도시가 단시간에 팽창하였다. 농촌사회에서 익숙하던 ‘마을’은 ‘동네’로 변용되었고, 도시에서는 예전의 공동체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화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성이 배제되었고, 획일화된 도시 모습과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은 고유성을 상실하였다. 흔히 현대사회는 저성장이거나 혹은 성장이 멈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여전히 사람은 구성원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공동체가 마을의 자율적인 역량에 기초하여 성장했듯이, 지금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의 역할과 다양한 대안활동,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마을을 대안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운동은 국가권력과 시장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립적인 삶의 방식을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마을만들기 운동은 단순히 국가권력과 대항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나종석, 201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며, 전국적으로 조직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과 관의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전광역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을 공동체는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를 통해 형성된 모임들, 사회적경제 영역의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활동, 도시공동체농업과 근교농촌체험마을 등이 있다(박재묵 외, 2014). 이 중에서 특히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공모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은 특정 공간에 한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모임과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석교동의 공동체 활동을 대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사하고 공동체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마을만들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마을만들기가 석교동 마을주민과 공동체의식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 이웃과의 관계와 공동체 활동들을 이해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공동체와 공동체 형성 과정

현대사회의 모든 집단은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이런 다양한 집단에 의지하고 그 안에서 희생하고 협력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공동체의 개념은 소수 집단이나 동일한 직종의 구성원들과 동의어로 쓰이거나, 정신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일정 공간 또는 마을이나 도시 지역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Dennis E. Poplin, 1979: 정선기 외, 2015).

니스벳(Nisbet, 1967)은 20세기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만족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대안을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적 재건을 위한 ‘함께 살며, 함께 일하고, 함께 겪으며 함께 하는’ 공동체의 재발견을 강조하면서 국가, 교회, 노동조합, 혁명운동, 직업집단, 소비조합 등의 다양한 인간 결합을 강조하였다.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정의하는 논점을 ① 지리적인 영역, ② 사회적 상호작용, ③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즉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지칭하였다(신용하, 1985).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나 시장의 경제 논리

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대안으로 사회 관계론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경일(1986)은 구성원들 사이의 심정적, 정신적 일체감 또는 이해관계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작은 집단을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동체란 인간의 사회적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일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나아가 공동의 가치를 그 공간에서 실현하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융합, 규범적 구조가 재생산되는 영역을 의미한다(최병두, 2000).

마을공동체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성과 공동체 활동의 목적성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해 준다. 이때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주민들의 공통된 감정과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개인의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특수이익과는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집합의식은 개인들의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각 세대와 더불어 이후 계속되는 세대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가나, 2008: 정선기 외, 2015). 따라서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공동체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이다(여관현, 2013: 정선기 외, 2015).

한편,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개념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임스 콜만은 사회자본이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 내에 있는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이라고 규정하였으며(Coleman, 1990), 사람들의 특정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관계를 사회자본으로 간주하였다(Coleman, 2003: 정선기, 2012: 김도균 외, 2014). 또한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연결망,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보았다(Putnam, 2001: 이재열, 1996). 특히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지속적인 연결망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을 사회자본이라고 보았다(Bourdieu, 2003).

즉, 사회자본이 사회관계와 구조 안에 존재하는 자본으로 특정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맥락에서 공동체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유용성에 대하여 이재열(1998)은 우리 사회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소통의 통로가 되며 도덕과 지역사회의 규범을 강화하는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용훈(2003)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자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여 경제적·정치적 측면의 효율성을 높여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허용훈, 2003: 김춘식, 2007). 즉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공동체의식으로 해석되는 사회자본은 지역주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준다.

공동체의 특징은 활동내용과 실천방안에 따라 특성들이 차이가 있지만,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따른 형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Hyman(2002)은 주민모집-어젠다 형성-지역사회 조직화-지역사회활동-발표와 메시지 전달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개발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고 보았다. 즉 주민모집 단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젠다 형성단계에서 아젠다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형성하고,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내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새로운 조직화를 시도할 수 있다. 지역사회활동 단계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실제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개발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 한다(이은지·최현선, 2015).

Arnstein(1969)은 주민참여 사다리 이론에서 주민참여의 정도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6단계부터 8단계를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단계라고 일컫고 있다. 비참여 단계(조직, 치료), 형식적 참여단계(정보제공, 협의, 회유), 실질적 참여단계(파트너십, 권한위임, 시민통제)로 구분하였다.

Singh(2003)는 커뮤니티 개발 과정을 개발(developing)-육성(nurturing)-비전 실행(implementing visions)-지역사회 연계(connecting neighborhoods)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주민들을 모집 및 조직화하고 육성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사정, 비전계획이 포함된다. 비전실행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실천 활동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단계는 성공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포럼 개최, 네트워크 형성이 포함된다(이은지·최현선, 2015).

박협찬 외(2012)는 공동체의 발전단계를 공동체가 시작되어 정착되는 씨앗기, 구성원들이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응집되는 도입기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확장되어 전화되는 발전기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3단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김찬동 외(2012)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사다리이론의 8단계와 연계하여 공동체 성장단계를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성구비단계, 준주민자치적단계, 준단체자치적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2.2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치즈꾸리(まちづくり)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사용되

기 시작한 용어로 김찬호(2000)는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장소만들기, 지역만들기, 도시만들기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김은희·김경민, 2010). 생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삶터 만들기, 이웃관계회복 및 의사소통경로와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체 만들기,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주민,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사람만들기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며(정석, 1999: 김태란·인태정, 2009), 일반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상가 등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홍인옥, 2006).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논의는 1970~1980년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전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공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공동의 의제로 만들어 가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조례들에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승화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태재윤·박소현, 2010). 이는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며, 주요 목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사회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농업, 등의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운동, 공동체 운동, 마을 가꾸기, 비즈니스,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뚜렷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각각의 지역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한 모형이나 이론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마을의 문제를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활동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동네)이라는 작은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는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마을 안에서 서로의 삶의 경험을 함께 거주하는 이웃끼리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런 공동체의식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마을만들기의 공동체는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및 자치공동체 등의 3가지 성격을 가진다. 경제공동체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삶의 안정적인 토대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을 말하고, 문화공동체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통합과 개개인에 내재된 창조적 능력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자치공동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자치)을 확보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박승현, 2004: 여관현, 2013).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의식과 인식, 고유한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활동이라면,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지역 또는 마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사업을 이끌어내는 대상으로 주민을 단순참가자로 두지 않고, 마을 안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의 참여하여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3. 연구방법

공동체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문헌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조사 방법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추진배경과 참여자, 마을공동체 형성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확장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대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공동체 조직들의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언론매체와 각종 문서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는 마을에서 공동체 형성과 주요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여,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거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대표자 및 운영위원 또는 실무책임자를 1차 면담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차 면접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눈덩이 표집방식을 선택하여 응답자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2차, 3차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표 1>.

질적연구방법 중에서도 본 논문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법을 활용한다. 심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연구방법은 조사 대상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사와 마을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통하여 자료의 객관적인 사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자 개인의 사례가 연구의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다. 심층인터뷰 방법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타인의 정보와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임도빈, 2009).

인터뷰 질문의 내용은 사전에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인터뷰의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반구조화한 형식의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개방형 질문을 주요 사용하였다.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이 먼저 3가지 영역으로, 사전에 문서와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수집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마을에서 이주 및 이웃관계, 마을만들기(사업) 활동, 공동체의식으로 구분하여 다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1> 인터뷰 진행 및 대상자

인터뷰 기간	2016년 7월 1일 ~ 8월 31일				
인터뷰 방식	일대일 면접을 통한 심층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구분	성별	연령	거주기간	특징
	A씨	여성	40대	40년	자원봉사자(책읽어주는엄마)
	B씨	여성	50대	19년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C씨	여성	50대	16년	석교마을N사람들 이사장
	D씨	여성	40대	20년	석교마을신문 발행인
	E씨	남성	50대	26년	석교마을N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F씨	여성	50대	26년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회원
	G씨	여성	40대	39년	청소년문화카페 마을멘토

<표 2> 심층면접 세부 내용

구분	주요내용
이주 및 이웃관계	이주 시기 및 기간, 이웃관계, 공동체 활동 참여 계기 및 주요활동 주민자치조직 참여 및 활동, 이웃 관계망 형성과 변화
마을만들기(사업)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내용 및 역할, 참여 기간 과정, 이웃 관계의 변화(관계형성과정)
공동체의식	공동체 형성과정, 구성원과의 관계 공동체형성의 내적·외적 환경의 특성

4. 분석결과

4.1. 석교동의 공동체 형성과정

석교동(石橋洞)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입지하고 있으며 돌다리마을에서 유래되어 석교동이라 불려오고 있다. 보문산과 대전천이 석교동의 경계를 만들고, 3개의 법정동(석교동·호동·옥계동)으로 구성되어 31개 통과 146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규모 APT단지 없이 240여개의 저층(5층 이하) 연립주택 위주로 형성된 도농 복합지역이다. 석교동은 지리적으로 2009년까지 보문산과 인접한 이유로 고도제한을 받았으며, 동 경계를 따라 흐르는 대전천은 대전시의 주요 도시계획 사업에서 지리적으로 벗어나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추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석교동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998년 5.4%에서 2014년 15.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을

기준으로 석교동이 속해 있는 대전시 중구의 13.0%와 대전 전체 비율인 9.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대전광역시 통계연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석교동의 사업체수는 2003년에 1,088개에서 2013년에 1,055개로 감소하였고, 석교동 내에 있는 옥계시장은 대부분의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이다(임병호 외, 2015). 이런 현상들은 단순 석교동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쇠퇴는 거주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줄뿐 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의 공동체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석교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받은 2013년도 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협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기업 공헌사업, 마을기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석교동 주민들의 모임과 마을만들기 활동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석교동의 공동체 형성과정을 김찬동 외(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참여활성화단계, 주민조직화단계, 준자치적단계의 총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은 이론적인 분석모형에 적용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 과정은 각 시기별로 활동들을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기준이 아닌 석교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각종 소모임, 주민 프로그램들의 주요 사건과 활동을 기준으로 공동체 형성 과정을 구분하였다.

첫번째 단계로 참여활성화단계는 알뜰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민워크숍, 마을조사 등의 공동체 활동이 이 단계에 속한다. 두번째 주민조직화단계는 주민이 만든 각종 소모임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2012년까지로 구분되고 교육공동체한뎃더, 석교마을신문, 허준의밥상 등이 있다. 석교동의 공동체 성장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준자치적단계는 2013년부터의 공동체가 형성된 시기이며, 이 단계에는 석교마을미디어센터, 마을축제와 석교마을N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동체 활동이 있다.

1) 참여활성화단계

석교동의 공동체 형성 과정 중, 참여활성화단계는 훈련되지 않은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알리기도 하고, 이웃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시기적으로는 알뜰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민워크숍, 마을조사 등의 주민활동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 석교동의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개개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촉발하여 증대하는 시기로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 알짬¹⁾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시는 교육·문화시설이 동과 서로 나뉘어져 지역적 격차가 심하며, 특히 석교동의 경우는 인근에 관련시설들이 전무한 곳이다. 특히 석교동은 거주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교육·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이하 어린이도서관)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마을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도서관의 초대 관장인 F씨(인터뷰 조사 대상자)는 2001년부터 몇몇 이웃주민과 자녀의 돌봄품앗이를 시작하면서 마을의 문제, 특히 자녀양육과 돌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으로 2005년 3월 석교초등학교 인근에 알짬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마을의 전업주부들이 자녀양육과 돌봄, 교육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착안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개관하기까지 마을 주민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다양한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런 지역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둘째 아이가 다녔던 학교 도서관에서 벌인 자원봉사활동 때문이었어....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늘 주장했던 것에 대놓고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분들 이.... 그 엄마들이랑 만나서 커피도 마시며 놀다가... ‘우리 도서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안했어... 근데 바로 ‘좋아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야. 저는 한 1년쯤 걸릴 거로 생각했거든... 놀라운 일이었어...알짬어린이도서관이 그렇게 만들어진거지....(F씨 인터뷰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모임과 학부모 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마을주민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여 마을 공동의 의제로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원활동가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다른 욕구상승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자기계발과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은 주민에게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과의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마을조사

어린이도서관에서 만난 석교동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고민하고

1) 알짬은 ‘여럿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우리말임.

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과 관계망을 형성해 나간다. 석교동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나 맞벌이로 인한 방과후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열쇠아동²⁾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열쇠아동들에게 책을 매개로 또래집단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를 기반으로 독서활동,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또한 석교동의 정확한 열쇠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2006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석교초등학교 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 현황과 방과후 주요 활동장소, 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방과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초등학생이며 방과후 아이들의 생활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형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과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도서관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시 어린이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반영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석교동과 인근 지역의 외부 인력도 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강사, 지역학교 교사, 문화활동 관계자 등의 참여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이들을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거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했을 때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단계적인 관계들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가정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는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의 돌봄을 아이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학원 땀 뻘이처럼 그렇게 안전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그런데 그게 되게 일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단기적인 이런 거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처음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있었던 분들이...시범운영하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D씨 인터뷰 중에서)

2) 주민조직화단계

주민조직화단계는 주민이 만든 각종 소모임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소모임이나 사업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다시 지방정부나

2) 열쇠아동(latchkey kids)이란 아이들이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나 보호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 혼자 집에 있는 5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각종 지원조직과의 협업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석교동의 공동체 활동 중 ‘교육공동체 한뼉더’, ‘석교마을신문’, ‘허준의밥상’ 등이 주민조직화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이웃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의식 등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1) 교육공동체 한 뼉 더

생계형 맞벌이 가정이 많은 석교동에서 방과후 아동들의 돌봄 문제와 교육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태, 평화, 공동체교육을 마을에서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품앗이 성장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열쇠아동의 교과서 없는 학교’가 2012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마을주민의 경제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가 구체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공동체 한뼉더(이하 한뼉더)’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도서관 중심의 활동들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한뼉더는 순수하게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던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운영자금을 만들어냈고, 주민공간으로서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주민후원자 모집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이렇게 참여한 주민후원자들은 단순한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주체로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어른과 아이들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은 또래 친구와 이웃의 형, 누나, 아줌마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주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통해 주체적 자아로 성장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남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 같이 교사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중략)...수업 과정 안에 공동체 수업이 공동체 프로젝트 수업이 있었고 인제 예술 수업이 있었고 거기 안에 한뼉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뼉더가 이제 가치가 스스로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아이 이렇게 되는데...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하는 그리고 평가까지 아이들이 해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우리도 스스로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고 함께 한뼉더가 교육공동체로 같이 성장 스스로 성장해가면서 가치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같이 잡았었던 거죠.(D씨 인터뷰 중에서)

(2) 석교마을신문

석교동에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가장 크게 기여한 주민활동은 ‘석교마을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석교마을신문은 ‘교육공동체 한뼘더’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마을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뼘더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대화를 힘들어하고 심지어 무서워하고 상처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마을취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모임과 교육관련한 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어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신문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었다.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재활동³⁾과 가가호호 신문을 배포하면서 마을의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신문의 기사는 마을 주민의 참여로 채워졌다.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주민의 재능기부로 신문을 편집하고 디자인하였다. 차량정비에 관한 내용은 차량정비사가 기사를 쓰고, 건강을 소재로 한 기사는 마을에 살고 있는 간호사가, 청소년에 대한 기사는 마을 청소년이 쓰기도 하면서 마을 주민 전체가 기자단이 되어 석교마을신문을 매개로 석교동의 공동체는 성장하였다.

청소년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석교마을신문이 창간과 함께 2013년도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석교마을미디어센터’를 만들면서 인근의 옥계동과 호동의 공간적 활동범위를 확장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신문을 통해 접한 다양한 소식은 마을과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작은 관심이 기사 또는 제보자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마을 공동체가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고민을 나누는 경험은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마을 내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인식하고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의 후원자가 되어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에 아기엄마가 왔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마을신문 보고 왔다고 했죠. 신문이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중략)...어르신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공동체를 처음 알고 신문을 보시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셨는데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물으러 오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신문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D씨 인터뷰 중에서)

(3) 허준의밥상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신뢰가 공동체의 형태도 좀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단순히 마을의 ‘일’과 만나는 관계는 먹거리를 통해 이웃관계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에 활동이 확장되어 주민의 삶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마을이야기, 마을 주민 개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를 답아주는 마을사람들, 마을의 미래인 청소년의 활동을 담은 마을과 청소년, 그리고 마을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알림판 동네방네로서 마을신문이 만들어졌다.

이런 관심은 2011년도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창업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와 화학조미료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반찬배달, 재활용품을 수거 등을 통해 이웃 간의 물건을 전해주는 마을 택배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 경제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음식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같은 고민을 하는 주민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나누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아쉬운 게 허준의밥상인데 망한 게 아니라 접은 거야 스스로 근데 허준의밥상은 실제로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가장 많은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아 이템이었거든요. 이제 왜 거의 맞벌이일 때 안심하는 먹거리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 근데 그 안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이제 이 허준의밥상 하면서 알았는데.... 많이 줄고 그래서 허준의밥상 접고 가장 아쉬워했어. 사람들이 지금도 허준의밥상 얘기 해....(F씨 인터뷰 중에서)

(4) 청소년 문화카페 24/7⁴⁾

어린이도서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석교동의 초등학생들이 성장하여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마을 안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기획하게 된 ‘청소년 문화카페 24/7’은 석교동의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자신들이 문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곳이다.

마을의 청소년 5명이 모여 자신들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 기획, 디자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카페 안의 다양한 청소년 공동체 활동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2012년에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활동을 기획해보고 사업 제안서도 작성하여 ‘청소년 자발적 사회 문화 활동 지원사업(아름다운재단)’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을신문의 기자는 물론 주민 공동체 활동에도 지역의 청소년 자격으로 마을축제, 공연,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의 가치를 학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공동체 주체자로 성장하고 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카페’도 부스로 참여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카페 부스를 찾았다. 커피나 음료를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신이 없기도 했다... (중략)...내가 봤을 때 석교동 마을축제는 정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데 나의 눈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4) 24시간 7일 내내 항상 함께 한다는 뜻임.

참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네 어른신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지만 청소년을 위한 부스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서도, 요즘같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가는 시기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축제가 있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교마을신문 중에서)

3) 준주민자치적단계

석교동의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자치적단계는 2013년 이후로, 주민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관계가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이다. 주민들과 공동의 마을의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복지증진과 경제적 고민도 함께 이어가면서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주민의 소득 증대까지 도모하는 자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주민이 마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고 마을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과 이웃관계에 통한 심리적 보상을 받으면서 공동체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석교동의 경우는 석교마을신문이 석교마을미디어센터로, 교육활동으로 추진되던 한발두발석교동공정여행이 협동조합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민활동들이 구체화되어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시기를 준자치적단계라 볼 수 있다.

(1)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석교동과 인근지역에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할 만한 복지관과 방과후지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활동공간과 안전한 돌봄, 먹거리 등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석교마을신문을 통해 마을을 알리는 공동체 활동은 마을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5년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는 ‘엄마교사’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는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면서 마을공동체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마을의 위험한 장소를 찾아내고 알리는 안전모니터단이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 활동의 결과는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온라인과 종이지도로 제작하여 주민들과 공유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마을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교동 내의 지구대, 방범대, 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안전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워크숍,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안전안심마을센터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마을의 안전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학습활동을 진행하여 마을리더를 양성하였고 마을안전지킴이가게 지정을 통하여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안전 워크숍에서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교동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늘랐지만 마을주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아서 더 늘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앞으로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도 마을에서 치안에 있어서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교마을신문 중에서)

(2) 마을축제

석교동의 축제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하던 ‘책축제’와 중구문화원에서 주관하던 ‘돌다리음악회’, 정월대보름 즈음에 개최하던 마을잔치 뿐이었다. 석교동만의 특징을 가지면서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잔치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을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석교동의 자생단체와 주민센터, 석교초등학교, 마을 예술가, 마을동아리, 학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참석하여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으는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에 개최된 ‘봉소루와 함께하는 돌다리한마당’은 마을주민들의 제안으로 추진한 공동체 활동으로 석교동뿐만 아니라 호동, 옥계동 등 3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여 추진되었다. 석교동 풍물패, 에어로빅, 하나로 예술단의 각설이, 난타, 민요, 노래, 클라리넷, 트럼펫 연주 등 어른들이 준비한 공연과 태권도 시범, 재롱이들 춤, 노래 등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하였다. 마을축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참여자 모두가 하나되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석교 보물타령’, ‘돌다리밴드’, ‘봉소루서당’ 등 석교동의 지역자산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강사를 발굴하고 문화를 매개로 석교동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석교마을의 고유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저희가 축제를 하자고 해서 어쨌든 그 분들과하고 얘기해서 추진위원장을 일부로 두 명을 뒀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명숙 이사장님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표선수로 이제 그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었어요. 어쨌든 자생단체 안에서는 그 양반이 또 대장이니까 근데 실제 축제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 통제를 좀 해야 돼 그러면 자율 방법대 어르신이 움직여 줘야 하잖아요. 또 그니까 이런 거 쪽 해 보면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축제를 쪽 해가는 과정 안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획은 니네가 잘해 기획해서 문서 생성하고 하는 건 니네가 잘해 그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니네가 잘하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뭐 한편으로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니까 좋은 거긴 하나 여전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을 안에서는 대접을 적게 받는 다거나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을 안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흐름을 못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성거리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이죠...(D씨 인터뷰 중에서)

(3) 석교마을N 사람들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따라 소규모로 활동하던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단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 마을 주민 21명이 설립동의자가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교마을N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석교동에서 10년간의 추진되어 온 다양한 주민프로그램과 공동체 사업이 마을로 확장되면서 공동체 활동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관심과 역량을 발굴하는데 기여하였다.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마을공동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조사와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내의 청소년, 노인 일자리와 마을리더, 마을도서관 운영을 통한 마을평생학습 사업, 빈집과 빈사무실을 활용한 공익사업과 마을기업 창업을 통한 마을 순환경제 사업 그리고 마을 기금마련과 배분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문화, 쉼터공간, 마을일자리, 마을주민 교육(평생교육) 재능교류, 마을커뮤니티공간, 마을유희공간을 이용한 공원만들기, 마을경제살리기(동네가게살리기, 시간제주차 등), 마을전체환경개선(쓰레기 처리, 꽃길조성), 마을대표축제(대표캐릭터개발) 등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주었다.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은 ‘석교동 마을 10년을 그리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마을리더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하는 ‘마을대학’ 과 10년 후의 석교동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마을그리기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석교동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주민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계망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자생단체분들하고 해보면 그분들이 의도된 편협된 시각도 있지만 실제 기존에 니네 공동체 활동한다는 애들은 한줌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실제 갖고 계시고 그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하도록 왜 우리는 10년 동안 좋은 일이면 이걸 왜 마을 정책으로 더 확산을 못해봤지 이런 면에서는 성과라고 하거나 뭐 이런 면에서는...최근에 어쨌든 사업을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경험을 기존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매우 적다라는 고민을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 조합을 만들고 최근에 뭐 힘에 부치기는 하는데요. 마을 순환경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고 해서 뭐 이것도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의 재정 지원을 받긴 하지만 마을 가게 전수 조사하자 해서 이번 주까지 그걸 해요....(D씨 인터뷰 중에서)

또한 마을의 취약한 사회서비스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공하는 시도로 기획재정부의

‘사회서비스 모델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여년 간의 마을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마을 아이들의 돌봄과 청소년 진로, 어르신과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석교동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2. 소결 : 석교동 마을공동체 형성

앞에서 분석한 석교동의 다양한 마을만들기는 참여활성화단계, 주민조직화단계, 준자치적단계로 진화하면서 주민들 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석교동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의 작은 문제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론화과정에서 주민 간의 공동체의식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석교동에 사는 많은 주민이 나와 내 가족, 더불어 마을을 고민해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적지 않은 부분을 마을에서 많이 해결하죠’ 등과 같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이웃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책임의식이 수반된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 지역고유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석교동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서 주민을 포함시켜놓음으로써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받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충족감을 느끼며 주인의식을 갖는다.

둘째,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다양한 소모임과 활동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친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가 통합되거나 충족되면서 주민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식 중, 특정 공간에서 받게 되는 충족감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인식하는 계기와 기회가 되어 다른 집단과 구분, 동질감,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즉 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마을의 공동의제가 되고, 이는 다양한 마을주민들과 만나서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공동체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셋째, 공동체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들, 특히 주민활동가들은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공동의 가치는 나누고, 석교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족감을 형성한다. 석교동에 숨어 있는 지역(문화)자산을 발굴하는 주민활동이나 이를 활용한 크고 작은 주민모임을 통해 마을 고유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써 개인은 각자의 규율에 맞추어 사고하거나 생활양식을 가지지만, 누군가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더라도 마을 혹은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일정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넷째, 석교동의 경우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공동체 활동의 목적을 설정하여 주민들 간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관계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주민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 개인의 재능이나 시간을 할애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마을 주민으로 소속감이라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작은 주민 모임에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와 만나게 하였고, 주민과 주민, 소모임과 소모임,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즉, 석교동 주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의사소통관계망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전체로 확장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구성원과도 연결되어 고유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의식은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작은 소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청장 등으로 의사소통의 망으로 확장되어 다시 공론화하는 힘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한다.

5. 결론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집단이 해체되면서 개인은 자유로워져 엄청난 가능성을 보장받았지만, 그 만큼 개인의 위험도 증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의 가족, 마을, 공동체 또는 사회계층이나 특정집단에 의지하여 극복했던 문제를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이는 결국 개인의 수입의 불평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구조 안에서 각종 사회문제도 또한 개인의 문제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한 인간의 삶의 중심을 이루던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Ulrich Beck, 1987).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석교동 주민들은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공론화하여 해결하려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본 연구는 석교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주목하여, 개인의 문제를 마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석교동 고유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 보았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석교동 사람들은 서로 호혜적인 이웃관계가 만들어지고 서로에게 미미하지만 물질적 경제적 보상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구성원 각자의 잠재된 욕구를 확인하거나 계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석교동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서로 간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교동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다시 이 아이디어가 집단적 욕구로 확정되면 동아리 수준의 욕구집단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민 각각의 역할로 민주적으로 나누어 분담되는 것이 중요하다. 석교동 주민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터전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홍보하며 참여 인원을 모집하여 재정을 관리하였다.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내부 운영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실질적인 운영진이 조직되어 공동체 활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정기적인 모임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체 운영의 전반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이 공유되었다.

이런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석교동의 공동체 형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석교동은 이동이 많은 도시의 거주 형태와 비교했을 때 마을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전의 구도심으로 석교동이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을 가진 마을이며, 상대적으로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웃과도 쉽게 어울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둘째, 석교동이라는 같은 공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자녀양육과 교육,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 문제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과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해결해야 하는 고유한 활동 목적으로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석교동만의 공동체적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마을 안에 머물고 있는 사회활동가들이 많이 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활동을 했던 주민활동가, 특히 육아기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마을에서 머물면서 주민과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마을 내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활동가들이 선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마을사람들과 만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석교동의 공동체 활동은 세대와 단체 간의 중첩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존속할 수 있었다. 마을 안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그리고 노인과 여성과 남성 등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대한 고민과 자기조직화를 거듭하면서 마을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석교동에서 이루어진 주민 활동이나 사업은 단발성으로 사라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례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의 경우는 사업의 활동이 선행되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라지거나 활동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석교동은 주민 개인의 고민이 이웃, 마을의 고민으로 확장되어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고민의 연속적인 활동들이 지금의 석

교동 마을공동체를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석교동은 지금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평범한 주민이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여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사례 지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사례로 분석한 연구로 자료와 조사 방법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사례 지역의 특수성이 마을만들기가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는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도균·정선기(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1), 281-306.
- [2] 김은희·김경민(2010),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파주: 도서출판 한울.
- [3]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 김찬호(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13(11), 95-115.
- [5] 김춘식(2007), “사회자본이 마을수준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경희대학교.
- [6] 김태란·인태정(2009),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유형과 특성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11(1), 145-169.
- [7] 나종석(2013),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마을인문학의 구체화를 향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26), 2-32.
- [8] 대전광역시(2014), 「2014 대전통계연보」
- [9] 박가나(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10] 박재묵·김도균·민병기·임현정(2014), 「대전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실태조사」,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 [11] 박승현(2004),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만들기의 향후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포럼발제문.
- [12] 박협찬 외(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연구」, 서울연구원.
- [13] 석교마을신문, <http://www.doldari.net>
- [14] 석교마을N 사람들 홈페이지, <http://doldari-n.net>.
- [15] 신용하 편(1985),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 [16]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http://cafe.daum.net/2005alzzam>.
- [17] 여관현(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18] 이은지·최현선(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과정의 탐색: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84), 75-94.
- [19]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호, 65-93.
- [20]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23-49.
- [21] 임도빈(2009), “질적 연구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5(1), 155-187.
- [22] 임병호·지남석(2015),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23] 정선기(2012). “사회자본의 정책적 의미”. 「사회과학연구」, 21, 27-43.
- [24] 정선기·송두범·임현정(2015), “마을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관계 분석-대전광역시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23(4), 103-121.

- [25]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6] 최병두(2000),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 6, 32-50.
- [27] 태재윤·박소현(2010),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7), 175-182.
- [28] 허용훈(2003), “사회자본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 [29] 홍인옥(2006), “도시와 주민참여: 김인·박수진 편”,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 [30] Arnstein, S. R.(1969), “A La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5, No. 4, pp. 216-224
- [31] Bourdieu, Pierre(2003), “사회자본의 형태. 유석춘 (번역)”, 「사회자본의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32]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London: Cambridge.
- [33] Coleman, James (2003).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서의 사회자본. 유석춘 (번역), <사회자본의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원저 출판년도 1988).
- [34] Dennis E. Poplin(1979),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The Concept of Commun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25.
- [35] Hillery, G. A.(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36] Hyman, J. B.(2002), “Exploring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to create a framework for community building”,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4), 196-202.
- [37] Nisbet, R.(1967), “Community. in Nisbet, R. eds. The Sociological Tradition; 지승중 역(1985) 공동체이론의 역사”,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 [38] Putnam, Robert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시청 역(2001).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서울: 전영사.
- [39] Singh, S. M.(2003), “Neighborhood Strengthening through Community Building”, *Comm-ORG Papers* page, 6.
- [40] Ulrich Beck(1987),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서울: 새물결.